

GANGJIN 

# *Web Contents*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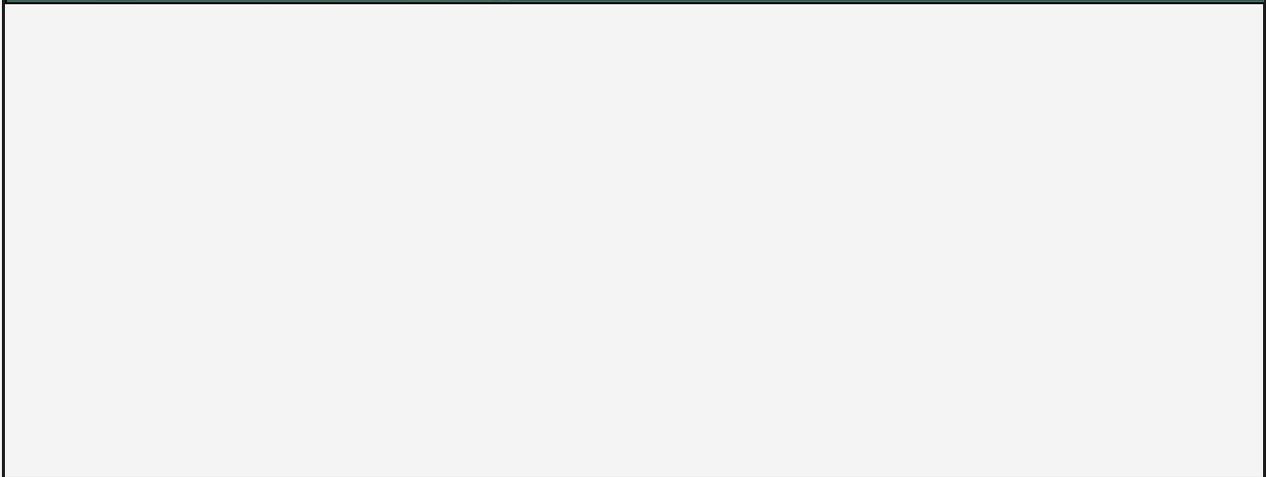
목차	2
국가지정문화재	3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3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10km이내)	5

##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 주소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70  
☎ 전화 061-430-3181  
❤ 추천 0

이용시간 시~시  
 휴무일  
 이용요금 무료  
 주차시설 주차장 없음  
 장애인시설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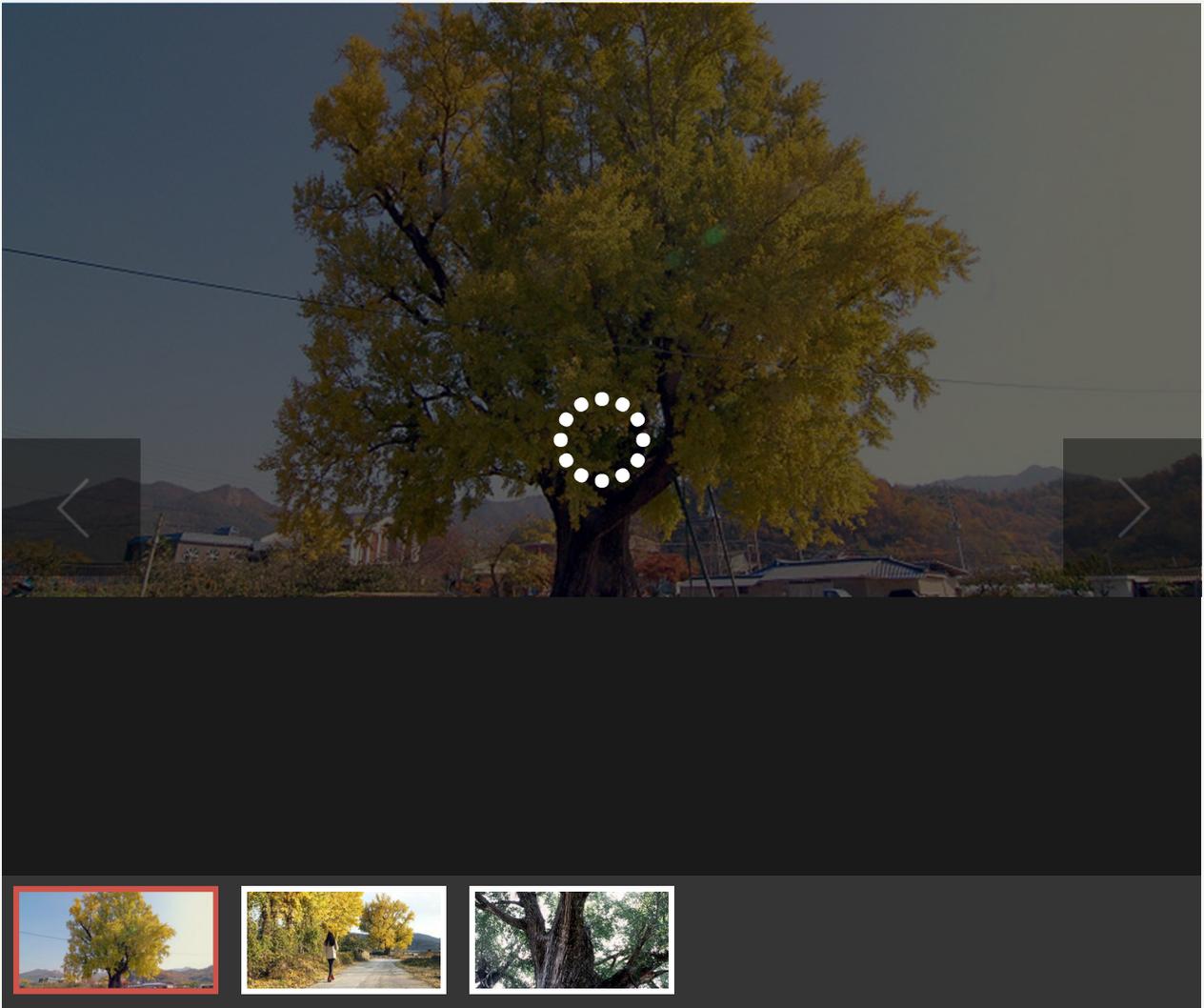



문화재지정번호	지정일	시대	규모
천연기념물 제385호	1997.12.30		1주

병영면의 은행나무는 강진읍에서 북동으로 14.8km 떨어진 병영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고려시대에 도강(도강)현의 현청이 있던 곳으로서, 조선시대 태종 17년(1417년)에 병영을 설치하여 병마 절도사를 둔 곳이기도 하다. 이 곳으로부터 은행나무는 약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은행나무는 동성마을 중앙에 우뚝 솟아 마을의 상징목으로 되어 있으며 수고 30m, 흉고둘레 6.75m, 수관폭은 중심에서 동쪽으로 16.5m, 서쪽으로 13m, 남쪽으로 10.9m, 북쪽으로 3.5m나 뻗어 있다. 은행나무(Ginkgo biloba)는 은행나무과에 속하며 중국을 원산지로 하고 있는 낙엽교목으로서 장수하는 나무인데 전라남도 화순 이서면의 은행나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나무의 크기나 마을의 역사성으로 볼 때 수령은 500년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옛날 어느 여름철에 폭풍이 휘몰아쳐 큰 은행나무의 크고 작은 가지들이 많이 부러졌다. 이를 보고 받은 병사가 부러진 큰 가지를 성안으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많은 가구를 만들게 했다. 이 때 목침도 만들어 이것을 병사가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 목침을 베고 잠을 자던 병마절도사는 그날로 병이 나서 신음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유명한 의원도 병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

였다. 백약이 무효인지라 끝내는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굿)를 하고 점도 쳐보니 은행나무 목침을 병사가 사용한다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지가 부러진 은행나무에 제사를 올리고 목침을 다시 붙여 주어야 완쾌가 된다고 하였다. 이에 무당의 말을 따라 그대로 하였더니 병사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아갔다. 지금도 은행나무 고목을 살펴보면 목침덩이가 들어있는 듯이 볼록해진 곳을 볼 수 있다고 한다.



##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10km이내)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70

 061-430-3181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70

 대중교통길찾기

목록으로

(<http://www.gangjin.go.kr>)

---

COPYRIGHT © GANGJIN GUN. ALL RIGHT  
RESERVED.

GANGJIN

***Web Contents***

